

周边勢力-調査研究 (東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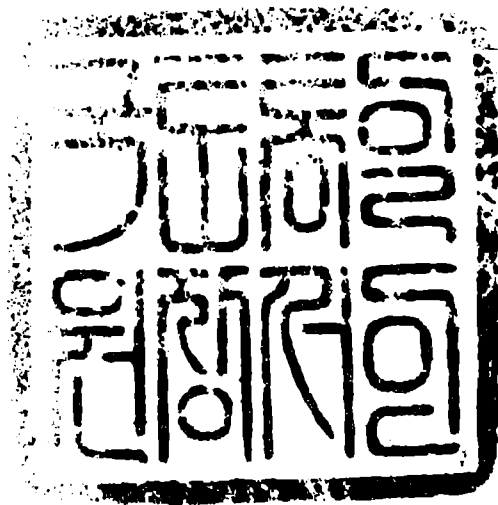
東歐諸國의 經濟改革過程

分析要約

관용
호미과) 5/3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自体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共產諸國의 經濟体制研究를 위한 參考資料로서 提供되는 것임.

調查研究 (東歐)
東歐諸國의 經濟改革過程
分析要約



刊行責任 金

明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1. 戰後東歐諸國의 經濟發展.....	3
2. 經濟成長 戰略의 轉換.....	11
3. 經濟改革 概觀.....	18
4. 計劃 및 管理面의 改革.....	24
5. 價格 改革.....	28
6. 企業의 成果判定의 改革.....	35
7. 勞動에 對한 經濟的 誘引.....	38
8. 勞動生産性.....	42
9. 金融制度의 改革.....	52
10. 資本形成問題에 對한 態度變化.....	60
11. 産業構造의 發達.....	64
12. 生産과 流通.....	73
13. 技術進步.....	78

1. 戰後東歐諸國의 經濟發展

가. 經濟의 成長

1) 國度所得

가) 成長率

○ 國民所得의 成長率

단위 : %

년도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
1951	41	10		16	8		12	10
52	-1	10		-2	6		11	-8
53	21	7	13	12	10	14	9	12
54	0	4		-5	11		12	3
55	5	11		8	8		12	13
56	1	5		-11	7	-7	11	-4
57	13	7		23	11	16	7	23
58	7	8	7	6	6	4	12	3
59	22	6		7	5	12	8	17
60	7	8		9	4	11	8	6
61	3	7	4	6	8	11	7	6
62	6	1	2	5	2	4	6	4
63	7	-2	3	6	7	10	4	12
64	10	1	5	5	7	12	9	13
65	7	3	5	1	7	10	7	2
66	11	10	6	8	7	8	8	9
67	9	7	5	9	6	8	9	2
68	6	8	5	5	9	7	8	5
69	8	6	5	5	3	7	5	9
51-69	8	6	7	5	7	8	9	7

①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年平均 8 - 9 % 成長率 達成

○ 소련 - 莫大한 資源과 規模의 經濟의 利益

○ 불가리아, 루마니아 - 發展初期의 低水準에서의 擴張

② 헝가리, 체코는 平均 5 - 6 %의 成長

이들 國家는 어느程度 經濟發展이 되어 있던 國家

나) 發展段階 (1950 年 이후)

① 第 1 段階 : 1950 ~ 58 年 期間 平均 11 %의 高度成長

○ 量的成長에 置重

○ 戰後復興으로 인한 既存產業施設의 活用

○ 雇傭, 投資의 擴大

○ 初期의 低水準에서의 擴大

② 第 2 段階 : 1958 ~ 63 年 期間, 成長率의 低下

○ 改革의 準備期

○ 勞動과 資本增加率의 低下

○ 農業의 全般的 凶作

③ 第 3 段階 : 1963 年 以後

○ 主要 計劃措置로 成長率 回復

2) 工業

○ 工業生產의 成長率

(1951 ~ 69)

單位 : %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
1951	19	14	23	24	22	24	16	-7
52	16	18	16	21	19	17	12	-2
53	15	9	12	12	17	15	12	13
54	11	4	10	2	11	6	13	15
55	8	11	8	9	11	14	12	15
56	15	9	6	-8	9	11	11	9
57	16	10	8	16	10	8	10	17
58	15	11	11	11	10	10	10	11
59	20	11	12	10	9	10	11	13
60	12	12	8	12	11	16	10	15
61	11	9	6	10	10	15	9	7
62	10	6	6	8	8	14	10	7
63	10	-1	4	7	5	12	9	16
64	10	4	6	9	9	14	7	16
65	15	8	6	5	9	13	9	7
66	12	7	6	7	7	11	9	5
67	13	7	7	9	8	14	10	0
68	12	5	7	5	9	12	8	6
69	11	5	8	3	9	11	7	11
51-69	13	7	9	7	9	13	10	9

○ 資本主義 諸國과의 比較

單位：%

	東歐 8 國	EEC	日本	英 國	美 國	世 界
1951 - 69	10	6	16	3	4	6
51 - 55	14	9	18	4	5	7
56 - 60	10	7	17	3	2	6
1961	9	7	20	1	1	5
62	9	4	8	1	8	8
63	7	5	10	3	5	7
64	7	7	18	8	6	7
65	9	4	5	3	8	8
66	8	5	13	1	9	7
67	9	11	20	0	1	2
68	8	9	17	5	5	7
69	7	13	16	3	5	6

註) 社會主義諸國의 工業에는 製造業, 鉍業, 包含

- ① 社會主義國家의 工業生産額은 各企業體의 生産額을 合計하여 求하므로 2重 計算을 包含함. 工業生産 成長率은 國民所得 보다 信憑性이 없음.
- ② 工業生産成長率은 國民所得 成長率보다 훨씬高率임. 其他 部門의 成長低調 意味.
- ③ 社會主義 國家의 工業成長率은 資本主義 諸國보다 高率

3) 農 業

○ 農 業 部 門 廣 長 率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
1951	40	1	19		-7	25	-7	45
52	-16	-3	3		2	-7	9	-34
53	22	0	8	18	3	17	3	44
54	-12	-1	4	2	6	1	5	-12
55	9	11	1	13	3	18	11	14
56	-7	4	-3	-12	7	-19	13	-13
57	17	-1	7	13	4	24	3	14
58	-1	3	4	4	3	-13	11	-18
59	18	-1	-3	5	-1	19	0	33
60	3	6	9	-6	5	2	2	-12
61	-3	0	-11	0	10	5	3	-6
62	4	-7	-1	3	-8	-8	1	5
63	2	7	8	5	4	4	-7	10
64	12	3	4	4	1	6	14	3
65	2	-4	8	-4	8	6	2	-6
66	15	11	3	8	5	14	9	24
67	3	5	5	4	3	1	1	-5
68	-8	6	1	1	4	-3	5	-4
69	2	1	-7	6	-5	5	-3	10
51-69	6	2	4	4	3	5	5	15

- ① 農業生産物の 価値評價는 生産者 (国营農場 , 集團農場 , 個人) 去來形態 (強制收買 , 個人販賣) 에 따라 相異
- ② 農業成長率은 国民所得 成長率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음

所 得	東 欧	世 界
国民所得 成長率	8 %	5 %
国民生産 成長率	10	6
農業生産 成長率	4	4

나. 社会主義諸国 經濟成長率의 評價

1) 成長率 評價에 考慮해야 할 要素

- ① 여러 가지 誘引制度의 存在로 企業은 生産実績을 過大評價
- ② 量的目標 달성전념, 製品의 品質에 소홀
- ③ 社会主義 國家의 生産水準의 低水準 - 동일한 percentage 生産增加가 社会主義 國家에서는 높은 增加로 나타남
(50年代의 一般的 傾向)
- ④ 非生産的 서비스를 国民總生産에서 除外
- ⑤ 工產品에 去來稅重課 - 国民所得에 工業生産의 比重이 높음
- ⑥ 国民所得 增加率 計算에서 Laspeyres 식 사용

이상과 같은 이유로 社会主義 國家의 成長率은 實際보다 높게 나타나는 첫임.

2) 社会主义国家 經濟成長率에 대한 西歐의 推計

	推計対象	時 期	年平均成長率	公式発表	高評價된率 比
Bergson	소련 GNP	1950-60	7.0%	(1) 10.3%	47 %
Bergson	소련 GNP	1950-55	7.6	11.4	50
Bornstein	소련 GNP	1950-58	6.5-7.5	10.9	45-68
Campbell	소련 GNP	1950-58	7.0	10.9	56
		1958-63	5.5	6.3	16
Cohn	소련 GNP	1950-58	7.1	10.9	53
		1958-64	5.3	6.3	26
Green slade & Wallace	소련공업생산	1950-55	10.1	13.2	31
		1955-61	8.1	10.1	16
Noren	소련공업생산	1951-55	11.3	13.2	12
		1956-61	9.0	10.1	11
		1962-65	7.3	8.4	15
Nutter	소련공업생산	1950-55	9.6	13.2	37
Diamond	소련공업생산	1951-64	3.8	4.1	8
Wiuet	소련공업생산	1950-61	4.3	5.0	16
Ernst	東歐 GNP	1951-55	5.7	(8.5)	49
		1956-60	5.2	(6.5)	25
		1961-64	3.6	(4.5)	25
Ernst	(3) 동구공업생산	1951-55	8.5	(13.0)	52

	推計対象	時 期	年 平 均 成 長 率	公式発表	高 評 価 率 比 率
Ernst	③ 동구농업생산	1956-60	8.1	(10.0)	23
		1961-64	5.8	(8.0)	37
		1950-63	(약1.5)	(2.5)	67

註 ① : 社会主義 概念의 国民所得, 工業生産, 農業生産 成長率
 ② : ()은 Wilczynski의 推計
 ③ :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의 6개
 국

- ① 美国 經濟學者들의 推計에 依하면 소련의 成長率은 公式發
 表 數值보다 약 $\frac{1}{3}$ 만큰 低率
 ② 西歐概念으로 換算할 경우,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서어비스가
 国民所得에서 占하는 比重이 크고, 成長率이 높기 때문에
 資本主義 國家의 成長率이 相對的으로 높게 나타남.

2. 經濟成長戰略의 轉換

가. 量的인 成長과 質的인 成長의 概念

1) 量的인 成長 — 資本, 勞動, 土地의 量的增加에 基礎

2) 質的인 成長 — 전반적인 生産性 向上의 結果

즉, 勞動能率의 提高, 資本과 기타 生産手段의 效率的인 使用
으로 因한 成長

나. 量的인 成長要素

1) 勞 動

① 東獨을 除外한 모든 東歐諸國은 戰後 높은 人口增加를 보
임, 1950 ~ 68年, CMEA 諸國의 人口는 27% 增加
(271 백만 - 343 백만)

② 또한 實質的 勞動供給은

㉠ 勞動時間의 長時間化

㉡ 農業, 家事部門에서 工業部門으로의 勞動力 移轉

㉢ 非生産的部門의 成長抑制등으로 急速히 增加

③ 工業部門의 高度成長은 勞動力의 增加에 크게 基因

○ 工業部門의 勞動力增加 (CMEA 諸國)

	1950	1968
工業部門	24 백만	34 백만
農業部門	53 .	47 .

④ 労働供給의 急激한 増加에도 超過需要가 存在하는 것이 社會主義 國家의 労働市場의 特色

그 要因은

- 企業의 能力을 초과하는 生産目標 割當 더 많은 雇傭으로 이를 解決하려 함
- 資本不足
- 工業化로 熟練労働者 急增

2) 資本

- 東歐諸國의 投資, 消費, 國民所得의 增加率

1959. (1950=100)

	投 資	消 費	國民所得
불 가 리 아	367	183	264
체 코	262	161	192
동 독	414	160	242
항 가 리	170	159	162
폴 랜 드	244		199
루 마 니 아	336		241
소 련	307	173	246
유 고	212		197

- ① 1950 年代에 資本形成이 急激히 이루어져 이期間에 投資의 增加가 國民所得 增加보다 큼
- ② 그 結果 소비는 高度로 抑制되었으며 投資는 1958-59 年 까지 계속 增加, 1960-64 年까지는 增加率 減少, 1965 이후 增加率 回復
- ③ 勞動만이 費用을 反數한다는 勞動價值說에 依拠하여 企業의 資本需要는 매우 높았으며, 1960 年代 終邊까지 資本使用料 Capital charge가 없었음.

3) 土地

- ① 人口密度가 작은 國家(소련,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 는 農耕地의 擴張으로 耕地增加

○ 耕地 增加率 (1950-67)

소 련	체 코	루 마 니 아	불 가 리 아
16%	25%	4%	3%

- ② Marx의 理論에 의하면 土地란 無價值한 것이므로 計劃 立案者, 農場, 企業所에서도 土地를 Cost로 看做하지 않음
- ③ 量的인 成長은 초기의 發展段階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급격히 이루어짐.

- 過度한 目標割當
- 生産目標의 초과달성을 위한 精神的, 物質的 支援
- 質的인 問題와 能率을 無視
- 체코에서 國民所得成長에서의 量的인 要因과 質的인 成長要因

	量的成長 要 因	質的 成長 要因			國民所得 成 長
		合 計	生産性向上	原料節約	
1949-50	51.5	48.5	67.7	-19.2	100.0
51-53	55.0	45.0	35.3	9.7	100.0
54-55	68.4	31.6	38.5	-6.9	100.0
56-58	74.1	25.9	35.0	-9.1	100.0
59-60	84.7	15.3	30.1	-14.8	100.0
61-64	320.7	-220.7	-133.2	-87.5	100.0

資料 : Czechoslovak Economic papers 1967.

다. 量的 成長依存으로 인한 浪費와 정체

1) 勞動面에서의 浪費

- ① 企業은 첫째 낮은 目標量의 割當, 둘째, 豊富한 資源의 配當을 받기 위하여 自體의 能力을 過小評價
- ② 企業은 目標의 量的인 초과달성을 위하여 Cost를 不考慮

③ 이러한 결과, 첫째 노동의 質的低下, 둘째, 企業의 勞動力 隱蔽形狀이 생김

2) 資本面에서의 浪費

① 固定資本은 無償으로 配分되었기 때문에 企業은 더 많은 資金配當을 要求

② 量的인 成長의 有害한 効果가 가장 작았던 루마니아에서도 投資效率의 惡化가 1950年代 中盤以後에 나타남.

○ 루마니아에서의 生産性 增加率

1950-55	35 %
56-60	9
60-65	7
66	0
67	-3

③ 이러한 결과 國民所得의 目標 成長率 達成에 더 많은 投資量이 必須的要素

○ 国民所得 1 單位의 增大을 위하여
 必要的 投資支出

	체코 (Korunas)	동독 (Mark)	폴란드 (Zlotys)	소련 (Roubles)
1950-55	1.33	1.52	2.72	1.52
56-60	2.01	3.00	4.70	2.00
61-63	11.72	6.17	5.13	3.67

資料 : Ota Sik, Plan and Market Under Socialism

3) 土地의 浪費

① 土地는 價値가 없는것 이므로 각 企業所는 土地의 効
 果的 使用에 無關心하며 不必要的 程度로 大量의 土地 占
 有

② 農業에서의 資源의 浪費는 傳統的인 食糧輸出國이던 東歐諸
 國을 1962-67 年에 食糧의 大量輸入國으로 되게함.

(이기간의 小麥輸入高 : 4,300 만 ton (= 840 億)

라. 質的인 成長으로의 轉換

1) 遊休勞動의 消滅

① 앞으로 出生率, 死亡率의 저하, 勞動可能人口의 總人口에 대
 한 비중저하 豫想
 (1960 年때의 59 %에서 1980 年때 57 % 예상)

② 非生産的部門의 增加가 不可避, 이는 다른 生産的部門에의 勞動流入을 減少誘發

2) 土地擴張의 限界到達

① 경작지의 擴大에 의한 農作物 生産增加 可能性은 實地적으로 全無

② 既存 耕作地도 産業用敷地의 增加, 都市化, 輸送通信의 발달 등으로 減少 豫想

3) 資本의 問題

資本은 將來에도 供給이 增加할 것이나 國民의 生活水準 向上에 대한 壓力으로 國民消費性이 높아질것임.

4) 實的 成長戰略의 採択

① 이러한 要因들로 東歐諸國은 成長戰略變更이 불가피

② 1960年代以後 各國은 經濟改革을 當該 技術進步, 勞動生産性向上에 注力

③ 實的成長에로의 전환에 관한 公式的인 결정은 특히 체코, 동독, 헝가리, 유고의 1966-70년의 5個年 計劃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3. 經濟改革의 概觀

가. 改革의 試圖

1) 1950年代 全般의 試圖

① 1950年代 以前을 論外로 하면, 改革論者들의 改革의 試圖는 1950年代初부터 있었음.

즉, 유고 : 1950-52

 항가리 : 1953-54

 체코 : 1953-54

 동독 : 1954-55

② 그러나 유고에서만이 中央集權的 計劃 管理体制의 緩和를 초래 즉, 指令的 年間計劃의 廢止, 價格機構의 部分的 復活 勞動者에 의한 自治的 經營導入

2) 50年代 後半의 試圖 (1956-60)

① 改革에 관한 意慾的인 Program이 폴란드, 항가리에서 提 案되었으나, Stalin 주의적 強硬派의 反對로 실제로 採 摺 된 것은 거의 없었음.

② 폴란드 - ○ 1956年 勞動者會議의 法制化

 ○ 市場機構에 관한 몇가지 實驗

소련 - ○ 經營管理의 自治化가 地域的으로 施行

항가리 - ○ 經濟計劃과 價格策定에 관한 分權化 導入

- (3) 東歐諸國에서 이 期間중에 中央集權 經濟体制의 緩和가 多少 있었으나, 유고를 除外하고는 經濟体制의 變更을 의미하는 改革이라 볼 수는 없었음.

나. 改革의 內容

1) 本格的인 經濟改革의 實施는 1960年代 以後 부터임

2) 改革의 內容

가) 經濟計劃樹立— ① 指令的, 細分化된 計劃에서 強制的인 目標의 減少

② 計劃樹立에 企業의 參與

③ 計劃目標의 價值 基準의 表示

나) 經濟管理

① 管理에 있어서 企業과 組合에 獨自性附與

② 中央計劃當局은 全體的인 統制, 調整에 局限

다) 價格策定

① 價格이 社會的 費用을 反映, 補助金 支給 必要性을 減少 하도록 再調整

② 價格이 市場條件에 의하여 결정토록 伸縮的價格制度 도입

라) 利潤

① 利潤을 企業의 成果 指標로 採択

② 利潤計算에 販売基準의 採択

마) 勞働에 대한 物的誘引

- ① 標準俸給表의 多樣化
- ② 利潤에 基礎한 從業員의 Bonus 支給

바) 金融機構

- ① 信用制度 擴張
- ② 利率의 多樣化

사) 投資

- ① 豫算變更에 의한 資本의 無償配分 大幅減少
- ② 銀行의 役割增大 - 投資의 効率性, 經濟活動에 대한 統制強化

아) 農 業

- ① 私有財産에 對한 制限措置 緩和
- ② 國家의 強制收買의 減少 或은 廢止
- ③ 增産을 위한 價格誘引制度 導入

자) 私企業分野

- ① 몇개의 分野에서 私企業이 活氣를 띠
- ② 즉, 改革으로 小売業, 飲食業, 洗濯業 등에 私的 利潤追求 許容

차) 對外貿易

- ① 外國貿易에 對한 指令的 性格緩和
- ② 外國貿易의 國家 独占緩和
- ③ 一部 國家에서 關稅를 貿易政策의 수단으로 採択
- ④ 國內市場 價格과 國際市場價格間의 距離縮小

다. 改革의 動機

1) 유 고

- ① 1948年 Cominform에서의 추방
- ② 國民大衆의 支持獲得 必要性 (一般大衆의 改革에 관한 壓力 上昇)

2)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소련

- ① 旧制度下에서의 非效率的인 浪費要因의 激甚

3) 불가리아, 루마니아

- ① 量的成長要因이 아직 存在했었으나
- ② 先進社會主義國家의 經驗으로부터 改革의 必要性 認識

라. 改革의 過程

年 度	国 家	改革의 内容
1960	폴란드	生産者 價格의 改革
1961	소 련	貨幣改革
1963	헝가리	計劃, 管理面의 分權化
1963	루마니아	生産價格의 改革
1963	폴란드	工業部門의 管理의 分權化
1963	동 독	新經濟計劃, 管理制度의 指針採択
1964	헝가리	工業에 資本使用料 導入

年 度	国 家	改 革 的 内 容
1964	체 코	私企業에 對한 몇가지 緩和策採択
1964	동 독	經濟計劃, 管理, 價格策定, 生産者價格, 小売價格 의 改革, 賃金制度 改革
1964-65	소 련	企業의 成果指標로서의 利潤의 역할에 관한 실험
1965	유 고	加一層의 分權化에 對한 전반적 改革 財政, 金融政策의 역할 強化 農業에 有利하게 價格改革
1965	소 련	私有菜田 耕作의 許容 企業에 獨自性의 大幅的인 부여 企業 成果指標로서 利潤을 公式的으로 採択
1966	폴란드	物的 誘引制度의 改革 企業의 自体 自給調達 強化
1967	체 코	計劃管理의 分權化 伸縮的 價格制度 導入
1967	불가리아	○ 計劃管理의 分權化 ○ 銀行制度 改革
1967	소 련	○ 生産者 價格의 改革
1968	헝가리	○ 伸縮的 價格制度 導入 ○ 農業에 物的인 誘引制度 導入
1968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 金融制度 改革

年 度	国 家	改 革 的 内 容
1968	불가리아	○ 工業 및 農業의 도매, 소매가격 改革 ○ 輸入商品 價格 改革
1969	루마니아	○ 物的 誘引制度의 擴大 ○ 企業의 獨自性 擴大 ○ 外國貿易의 分權化
1969	동 독	○ 工業價格 改革

마. 制約要素와 展望

① 다수의 공산주의 理論家들은 改革을 퇴보라고 단정

이는 Full communism의 연기를 의미한다고 강조

② 社会主义國家에서의 改革으로— 유고에서조차— 이들 國家가 資本主義로 復歸하는 징조는 없음. Marx의 이상인 Full communism은 社会主义 發展의 窮極目標임이 강조되고 있음.

③ 그러나 ㉠ 理念的 強硬主義의 약화, ㉡ 점점 더 퍼져가는 自由에의 熱望, ㉢ 高生活水準에 對한 要求 등은 改革의 推進에 貢獻할 것이며 이들 國家가 다시 中央集權的 計劃 國家의 旧制度로 復歸할 可能性은 없음.

4. 計劃 및 管理 面의 改革

가. 改革 前의 中央集權的 計劃 制度

1) 特 徵

- ① 意思決定權의 集中
- ② 垂直的인 經濟關係 形成
- ③ 計劃管理의 指令的 性格
- ④ 物的인 目標基準 使用

2) 中央集權的 計劃制度의 根拠

- ① 後進國 開發에 있어서 未開發된 資源의 動員, 開發 資本設備 熟練勞動力의 創造에는 經濟의 急激한 變動이 必要하며 指令的 計劃制度는 量的成長期에 많은 長點을 保有
- ② 東歐諸國에는 訓練된 行政 및 管理者의 不足, 우수한 立案家들이 中央計劃 當局에 集中

3) 改革의 必要性 대두

- ① 中央集權 計劃制度는 生産構造의 適正化, input의 최소화에 貢獻 不함.
- ② 計劃이 너무 tight해지고, 過大目標 設定에 따른 불안정요소 대두
- ③ 計劃樹立家의 過誤, 行政家의 無能, 豫期치 못한 突發事件 등으로 bottleneck가 頻繁히 나타남 - 各部門에 連鎖反應

나. 計劃管理의 分權化

1) 計劃樹立面의 改革

① 計劃樹立過程에 各企業의 參與

② 企業間 協力の 強化

③ 체코, 헝가리, 유고등에서는 年間計劃의 事實上 廢止

④ 指令的 指標의 大幅縮小

(例, 소련 : 1965年 以前 이러한 指標는 30-40 個였으나
현재는 약 10 個에 不過)

⑤ 構造的 計劃의 登場

⑥ 中央計劃 當局은 長期開發計劃에 集中 研究

2) 經濟行政의 變動

① 國家計劃委員會 및 各省의 權限은 中間機關 (業種別 協會등)
으로 移讓

② 企業에 獨立性 大幅認定— 生産方法 選擇의 자유

③ 勞動者들의 自治運營制 導入

3) 分權化의 效果

① 計劃 및 管理의 分權化로 첫째, 計劃樹立의 不合理性 提起,
둘째, 計劃當局과 執行部署와의 連結關係 改善 可能

② 勞動者들의 自治運營으로 첫째, 勞動者의 自負心을 提高, 들
째, 責任感은 昂揚하여 企業의 浪費除去에 貢獻했으며, 企業
性의 向上에 腐心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 数学的인 方法과 컴퓨터의 使用導入

1) 改革前의 計量 經濟學에 대한 態度

① 数学的인 方法은 限界分析, 生産의 非勞動要素의 價值評価 등이 包含되어 Marx의 理論에 반하여 反動的인 것으로 看做

② 實際的으로 数学적 方法의 사용은 과거에 無批判的으로 認定되었던 黨의 결정의 過誤를 露出한다고 指導者들은 생각

2) 態度의 変更

① 1956年 以後 数学적인 方法에 대한 態度의 変更

② 数学적인 方法과 電子計算組織의 導入으로 計劃 및 管理制度에 全般的인 革新, 특히 費用節減, 能率化의 달성에 莫大한 効果

③ 東歐諸國은 最近 電子計算機의 增産에 努力을 集中하고 있으며, 1969年의 CMEA 總會에서 各國의 컴퓨터의 설치운영에 協力한다는 결의안 採択

④ 모든 國家의 國家計劃委員會에 컴퓨터를 設置했으며 個別 企業에도 漸次 컴퓨터가 普及擴大 되었으며, 앞으로 統合 컴퓨터 網이 全 經濟를 總括하게 될것임.

라. 適正計劃 (Optimal Planning) 概念의 導入

① 1950年代 末까지 計劃의 適正化는 立案者들의 關心을 끌지

못했음. 그 이유는

첫째, 이에 관한 理論的인 指針이 없었고,

둘째, 計劃立案 技術의 誘致

셋째, 國民所得의 量的인 極大化가 최대의 目標로 看做

② 最近에는 消費의 極大化가 適正의 主要한 基準으로 提示되어
社會福祉의 繼續的인 進展(消費增加, 勞動時間 短縮)과 관계
있는 生産의 極大化가 評價基準으로 採択되어야 한다고 提示
되고 있음.

③ 計劃의 樹立에 資源의 相對的 稀少性을 反映하도록 되어 기
회비용의 계산이 不可避

④ 高度, 適正計劃에 傳統的인 Marx 이론과는 矛盾되는 生産의
非勞動的 要素評價, 限界分析에의 依存을 招來

⑤ 適正計劃樹立에 대한 첫번째 試圖는 1960年代 初에 소련에
서 있었으며, 기타 先進 社會主義 國家들이 이에 뒤따름

5. 價 格 改 革

가. 價格策定の 合理化

1) 改革前의 價格策定

① 價格도 Marx의 價值概念에 基礎

○ 生計費, 勞動費用, 社会的인 考慮에 의하여 策定되어 地
貸, 利子, 効用과 稀少性, 需要, 供給의 變動은 價值判斷
에 不考慮

② 價格策定은 國家計劃委員會가 担当 하였으며 바람직한 國民
所得 分配 構造를 念頭에 두었음.

③ 價格은 人爲的으로 決定되어, 價格資源配分 機能을 遂行하지
못하고, 資源配分은 物的인 Balance 體系에 의하여 이루어
짐.

④ 이러한 價格制度는 資源配分의 效率化, 質的成長에로의 轉換
必要性에서 볼 때 非合理的인것.

2) 價格改革

가) 各國의 主要 價格 改革

동 독 : 1964-66, 1969-70

유 고 : 1965

소 련 : 1967

폴 렌 드 : 1967, 1971

체코 : 1967-68

헝가리 : 1968

불가리아 : 1968-69

나) 價格改革의 主要特徵

① Marx의 生産價格 (Procluction Price) 概念 採択

② 生産者價格 (Procluceis price)의 引上 - 利潤向上,

計劃上の 赤字要因 提起

○ 소련은 1967年의 價格改革으로 企業의 利潤率이

向上

	舊價格에의 한利潤率	新價格에의 한利潤率
石 炭	-17.0 %	8.0 %
電 氣	4.6	10.0
木 材	6.9	12.6
工業原料	5.4	13.6
石油採取·精油	10.4	14.6
鐵 鉍	8.6	15.0-16.0

③ 限界分析에 대한 反感 惡化

○ 限界對替率, 限界費用, 限界土地, 限界企業등의 概念認
定

○ 限界企業의 生産費에 의하여 價格策定

④. 伸縮的 價格制度 採択

⑤ 生産者 價格과 消費者價格의 有利 緩和

○ 去來稅, 補助金의 大幅 減縮

⑥ 價格決定上의 分權化

○ 유고,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는 대부분의 價格決定이
分權化

⑦ 묵시가격 (Shadow price)의 資源配分에의 反映

⑧ 國內市場價格과 國際市場價格間의 聯関性 強化

○ 특히 유고,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동독, 폴란드

나. 1次產品 價格의 改革

1) 改革前의 價格制度

① 1次產品 (食料品, 原料農産物, 木材, 鉍物)의 價格策定은 工業製品 보다 低評價

즉, Marx의 勞動價值說에 依拠하여 또한 經濟開發上의 實際的인 理由로 低評價

② 農産物 價格은 地域, 國家에 納入하는 量, 農場의 形態에 따라서 相異

農産物 價格의 多樣性

(폴란드, 1966)

(Zlotys/Quintal)

	強制수매	自由수매	自由市場價格의範圍
보리	156-249	268-328	319-407
귀리	148-158	265-283	297-417
감자	53 *	100*	84-143
호밀	175-186	284-297	298-386
밀	221-29	358-376	398-485

註) : *는 平均値임

(3) 이러한 價格策定은 農民의 士氣低下 및 社會主義 農業의 無視로 1960年代로에 大農業凶作을 招來하여 타산업부문 성장을 저해.

(4) 또한 穀物 및 原材料 價格의 상대적인 低廉은 이들의 浪費를 招來

2) 價格改革

(1) 1次產品 價格水準의 引上

国 家	年 度	價 格 引 上
항 가 리	1966-68	農産物 : 17 % 工産物 : 7.8 % 化学製品 : -2 %
소 련	1967	石 油 : 2.3 배 化学製品 : 5 %
유 고	1965	農産物 都売價格 : 33 % 工業製品 : 13 %

(2) 農産物의 増産을 위하여 차액지대의 제2형을 認定하려는 징
후가 보임.

다. 價格의 伸縮性 賦与

1) 改革前의 價格

(1) 1960年代 중반까지 生産재가격은 長期間에 걸쳐 固定
(普通 5-10年), 소매가격도 자주 変更되지 않았음.

(2) 量的 成長期에 있어서 이러한 價格固定은 許여가지 利点
保有

2) 價格의 伸縮性 導入

(1) 質的成長에 로의 轉換을 위하여 價格 伸縮性의 몇가지 要素 導入

(2) 商品의 타입에 따라 相異한 價格制度 採択

○ 固定價格 : 國家에서 결정, 長期間固定, 燃料, 金屬, 必須 消費品 등 生産費의 構造, 水準에 相當한 影響을 미치 는 品目

○ 실링가격 : 國家가 最高價格을 指定 原料, 家庭의 必需的인 商品, 이 價格에서는 販賣者間의 競争이 어느 정도 可能

○ 最高, 最低 指定價格 : 國家가 最高價格과 最下價格指定 이 範圍안에서 自由로이 變動 (준사치성 소비자)

○ 自由價格 : 市場에서 需要, 供給에 의하여 價格決定 사 치품, 非規格制化 (寶石, 회화, 수공업 제품등)

라. 外國貿易 價格

1) 改革前의 價格

(1) 國內價格과 國際市場價格間의 遊離

(2) 1958年까지 社會主義 國家間 貿易에서 價格決定上의 制度 的인 根拠가 없었다. 1958年 Bucharest 協定締結로 資本國의 市場의 平均價格 使用合意

- ③ 그러나 이 가격은 社會主義 國家의 人爲的인 價格引上을 考慮하여 資本國의 市場價格보다 높았음.

2) 價格改革

- ① 1965年 以後, 國際市場價格과 聯關性 維持하도록 改革

- ② 실질적인 換率採択의 試圖

○ 소련 (1961), 유고 (1962), 루마니아 (1968) 등 單一換率制 採択

- ③ 輸入商品의 國內市販價格은 國際市場 價格과 同等하게 價格策定.

6. 企業의 成果判定の 改革

가. 企業의 重要性認識

1) 過去의 企業觀

- ① 많은 資本主義 米시경제학 概念들은 Marx의 理論과 矛盾되어
- ② 社會主義 國家의 形成後, 첫째, 資本主義的 自由放任主義, 再現防止, 둘째, 經營管理人的 不足등으로 企業의 獨立性 制限
- ③ 企業은 計劃當局의 指令的 計劃, 管理에 服從하는 受動的 役割

2) 企業의 重要性認識

- ① 1950年代 중반이후의 經濟모델에 관한 "大論爭"과 60年 초에 經濟沈滯는 米시경제, 특히 企業을 再評價하는 契機提供
- ② 計劃當局이 資源을 適正配分해도, 企業單位에서 실제로 浪費의 可能性이 있음을 理論家, 政治指導者들이 認識
- ③ 高度, 企業의 獨立性認定 必要性 및 유인제도에는 個別經濟와 米시경제의 相互聯關性이 있어야 함을 인식.

나. 企業의 成果判定の 基準改革

1) 改革以前의 基準

- ① 유인에 관한 補償基準으로 生産量 採択 즉, 일정기간에 生産된 物的規模가 基準.

(2) 企業은 製品의 Cost, 適當性, 質에 關係없이 目標의 量的達成에 만 努力集中.

(3) 生産物의 가치로 判定 기준을 變更하자. 企業은 製品生産에, 高價의 原料로 使用 傾向, 社会的으로 非必需的인 사치품 供給增大.

2) 基準의 改革

(1) 企業성과判定基準으로서 「利潤」을 採択

(2) 이 基準은 1952年 유고가 制限된 範圍內에서, 許容採択, 향가리는 1957年 採択

(3) 소련에서는 E.G. Liberman 이 企業의 成果 指標로서의 利潤率 제안. (1948, 1950年代 후반, 1962)

(4) 소련은 1965年에 企業成果 判定의 主要 지표로서 利潤을 採択

(5) 기타 社會主義國家도 利潤을 基準으로 採択

• 企業의 成果와 能率의 問題

(1) 指標로서 利潤을 採択 함으로써 企業은 費用節減, 구매자기호에 맞는 製品生産 등 生産의 合理化를 위한 努力

(2) 最近 利潤의 急激한 증대는 社會主義下에서도 利潤·動機가 매우 強함을 立證.

(3) 그러나 社會主義 經濟條件下에서는 利潤의 極大化와 能率의

極大化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음.

④ 이의 원인은 첫째, 競争의 不在, 둘째, 價格의 非合理性, 셋째, 利潤率의 相異에 起因.

⑤ 利潤은 去來稅, 補助金에 의하여 生産者 價格과 소매가격 水準의 乖離현상으로 能率을 反映하는 指標의 役割 制限.

7. 勞動에 對한 經濟的 誘引

가. 質的 成長과 誘引制度

1) 改革以前의 誘引制度

- ① 勞動者의 理念的, 倫理的인 側面을 刺戟하여 勞動者의 긍지, 成就感, 責任感 등을 浮刻시켜 賞牌, 勳章, 훈장, 또는 黨員 資格등의 特典賦與
- ② 이러한 誘引制度는 부여된 課業의 達成, 또는 초과달성 境遇에 特典을 부여
- ③ 物的 誘引은 不可避할 경우, 일시적으로 許容, 즉, 特殊한 任務, 特定人, 特定企業에만 부여

2) 誘引制度 改革의 必要性

- ① 改革以前의 誘引制度는 量的 成長期에는 適合했으나, 能率增進에는 寄與하지 못함.
- ② 誘引制度는 企業을 刺戟하여 과업의 최소화, 資源配分의 최대화를 企圖하게 하였으며, 과업의 달성은 Cost와 제품의 質提高를 度外視할때 달성이 容易.
- ③ 繼續된 政治思想事業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준향상에 대한 國民의 要求漸增.
- ④ 質的인 成長으로의 轉換과 이에 따른 誘引制度 變更의 必要性 切實.

3) 誘引 制度의 改革

(1) 勞働者의 要求를 刺戟, 과업을 달성하면 現物이나 貨幣로 補償.

(2) 物的인 誘引을 '社會主義 競爭'의 緊要한 요소로 認定

4) 改革의 効果

(1) 中央의 細部化된 統制에서 企業의 解放되어 勞働者 및 管理者는 責任感, 自覺, 소외감 脫皮

(2) 物的 유인 制度 導入은 耐久消費財의 購入을 위한 高所得收入을 위하여 강한 영향 행사

(3) 政府는 勞働者 刺戟을 위하여 消費財 産業에 資源配分 擴大.

○ 人口千人当 販売된 耐久消費財 数

	년 도	라디오	T.V	냉장고	세탁기	진청 공소기
불가리아	1963	19	6	3	13	n-a
	66	18	15	7	14	n-a
체코	1963	22	24	14	11	10
	67	18	19	21	19	13
동독	1963	31	32	15	18	21
	67	43	26	24	21	19
헝가리	1963	15	15	3	14	5
	66	21	17	11	19	9
폴란드	1963	18	12	4	17	8
	67	21	15	9	13	10
루마니아	1963	14	6	4	4	2
	67	18	12	7	5	3
소련	1963	19	10	4	9	2
	67	21	18	10	17	4

나. 企業利潤과 物的誘引制度

① 改革以前의 制度

○ 改革以前에는 中央計劃当局이 限定된 企業資金펀드에서 個

人에 대한 物的誘引 提供

2) 改革 實施의 結果

- ① 企業成果 기준으로서의 利潤의 重要성은 物的誘引이 企業利潤의 規模, 收益率에 基礎함에 있음.
- ② 企業利潤은 「物的誘引펀드」, 「社會文化펀드」로 構成
- ③ 物的誘引펀드로 大개 企業總利潤(課稅以前)의 1/10 留保.
- ④ 物的誘引制度에 의한 輸入은 全體 勞動輸入의 約 25% (동독, 루마니아는 約 20%)에 달함.
- ⑤ 物的誘引制度의 導入은 結果적으로 비용의 節減, 製品의 質的水準 改善에 크게 寄與.

8. 勞 動 生 產 性

가. 適正雇傭 (Optimum Employment) 의 問題

① 量的 成長下에서는 適正雇傭이란 極大化를意味

- 社会主義 國家는 國民들의 生存을 保障해야 하므로 勞動의 限界生産性이 거의 zero에 달할때까지 雇傭增大
- 誘引制度도 雇傭擴大에 力点, 能率을 度外視

② 質的成長에의 轉換으로 勞動生産性的 上昇에 역점

- 適正 雇傭水準도 最大雇傭可能 水準以下라는 것을 認識
- 企業에서도 勞動의 限界生産物이 限界費用과 同一한 점까지 雇傭을 제한하려는 傾向

③ 勞動에 對한 초과수요를 豫防하기 위하여 經濟計劃 樹立에 있어서 좀더 現實的인 目標을 設定

④ 勞動力의 分配에 있어서도, 보다 能率的인 部門으로 再分配

- 各國에서 雇傭事務所 設置
- 農業에서 工業으로의 勞動力 再配置
- 非農業部門에서도 勞動力 再分配

⑤ 社会主義 國家間 勞動力의 相互利用 增加

- 불가리아의 勞動者들의 소련의 製材所, 鉄鋼産業 就業
- 헝가리, 폴란드 勞動者들의 체코, 동독등지에서 취업.

나. 勞働生産性 과 質的인 成長

1) 勞働生産性 上昇의 必要性

① 標準 勞働時間의 短縮, 초과노동시간의 減少 傾向

○ 東歐諸國의 適當 平均 勞働時間은 1950年代末의 48 時間에서 60年代, 44時間, 80年까지는 適當 35時間이하로 減少할 展望

② 出生率의 저하, 또한 人口의 自然增加率은 앞으로 10年間에 아주 낮을 것이 豫想

동독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	소련	미국	서유럽 세계	세계
0.2	0.3	0.4	0.7	0.9	1.0	1.0	1.0	1.4	0.7	2.0

2) 社会的 勞働生産性 (Micro Social labour Productivity) 과 經濟的 勞働生産性 (Micro Economic labour Productivity)

① 社会的 勞働生産性은 雇傭의 增加에 의하여 上昇하나, 經濟的 勞働生産性은 雇傭의 減少에 의하여 上昇

② 歷史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諸國은 長期間에 걸쳐 社会的 勞働生産性의 上昇에 依存하였으며, 이는 量的成長期의 特徵

③ 勞働生産性을 繼續하는 技術이, 發達하여, 中央集權的 計劃이 아직도 支配的인 동독, 소련에서도 勞働生産性 指數를 賃金

펀드, 보너스 펀드 決定의 根拠資料로 使用

④ 經濟改革의 實施로 經濟的 勞動生産性的 上昇에 力点

3) 資本의 擴大와 深化

① 質的成長에로의 轉換으로 資本의 擴大보다 資本의 活用에 중점

○ 東歐諸國의 投資雇傭比率

(1950 - 68)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1950-66	2.0	2.1	1.2	1.9	3.1	2.1
1961	1.0	2.0	-2.0	2.3	2.6	0.7
62	3.5	-1.0	3.0	2.8	1.9	1.3
63	2.5	-5.5	5.0	1.0	1.6	1.7
64	2.5	5.5	1.0	2.0	2.0	2.3
65	1.3	2.3	(1)	2.5	1.8	1.6
66	2.4	3.7	10.1	2.3	2.5	1.8
67	5.0	3.0	9.5	2.8	4.3	2.7
68	0.0 ⁽²⁾	4.5	2.5	2.0	3.0	2.0

註 1) 投資增加率 / 雇傭增加率

註 2) ①: 投資는 1% 增加, 雇傭水準 不變

②: 投資增加, 0%, 雇傭增加 5%

註 3) 동독, 유고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음.

(2) 資本의 深化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첫째, 計劃은 現實性을 두게 되었고, 企業의 過多投資抑制
둘째, 企業의 資本設備增大에 莫大한 努力傾注, 非生産的, 不
動産(例, 建物)投資 減縮

4) 勞動生産性과 實質賃金

(1) 1950年代는 高度의 生産性 上昇을 實現, 1960年代는 上
昇이 低調 그 이유는

- ㉠ 東歐諸國등에서의 經濟沈滯
- ㉡ 改革에 따른 過度的 不均衡
- ㉢ 適當 標準 勞動時間의 短縮
- ㉣ 工業生産品 高評價 傾向의 減少

(2) 實質 賃金上昇은 國民所得成長보다 낮은데, 이는 고도의 資
本蓄積을 위하여 現在의 소비를 抑制한 結果였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東歐諸國의 見解가 變하고 있음.

労働生産性と 実質賃金の 動向
(1950-68)

(年平均増加率 : 經常価格)

国 家	期 間	人当国民所得	人当工業生産 ①	人当農業生産	工業生産性	実質賃金
불가리아	1950-60	11	13	6	5	7
	61-64	6	10	3	6	2
	65-68	8	12	2	7	6
체 코	1968(자수) ^②	438	853	196	322	270
	1950-60	5	10	2	7	5 ③
	61-64	1	4	0	3	1
	65-68	6	6	3	5	2
	1968(자수)	247	371	124	275	160
동 독	1950-60		12	6	6 ③	6 ③
	61-64	3	7	1	6	2
	65-68	5	6	5	5	3
	1968(자수)	396	502	204	328	360
헝 가 리	1950-60	6	10	2 ③	4	5
	61-64	5	8	2	5	2
	65-68	6	6	2	4	2
	1968(자수)	249	424	135 ①	211	182
폴란드	1950-60	6	11	1	8	5 ③

国 家	期 間	人当国民所得	人当工業生産	人当農業生産	工業生産性	実質賃金
폴란드	61-64	5	7	1	5	2
	65-68	6	7	6	5	1
	1968(자수)	265	494	126	326	149 (5)
루마니아	1950-60	6 (3)	12	5	9	
	61-64	8	13	1	8	4
	65-68	7	12	3	8	5
	1968(자수)	426	759	177	433	140 (6)
소련	1950-60	8	10	3	8	2 (7)
	61-64	5	7	3	4	2
	65-68	7	8	4	5	4
	1968(자수)	348	448	158	302	140 (8)
유고	1950-60	9	12		8	5
	61-64	7	10		7	6
	65-68	3	3		4	6
	1968(자수) ⁹	290	480	213	210	242

註) : (1) 工業労働者1人当生産

(2) 1950 = 100

(3) 1955-60年期間

(4) 1954 = 100

(5) 1955 = 100

(6) 1960 = 100

(7) 1958-60年期間

(8) 1958 = 100

(9) 1952 = 100

다. 勞勤生産性 上昇의 役割

1) 國民所得 上昇과 勞勤生産性

o 勞勤生産性 上昇의 成長 寄与率

(1950-68)

單位 : %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
(1) 1950-60	22	32	53	11	31	43	40	20 (2)
1961	-33	43	150	67	62	36	14	50
1962	67	-200	100	40	-100	-75	33	50
1963	14	-200	100	50	57	50	25	83
1964	60	-100	80	20	71	58	56	54
1965	-17	0	80	100	43	50	29	0
1966	20	70	83	87	43	50	50	122
1967	56	86	60	78	33	50	57	150
1968	50	67	80	20	56	71	50	80

註 1) : 國民所得의 成長率을 100%로 할때, 나머지는 雇傭增加에 의한 成長을 表示, -는 國民所得 성장보다 雇傭增加가 더 큰 境遇

註 2) : (1) 1950 = 100, (2) : 1952 - 60 年期間

註 3) : 算出式 : $p1 = 100 - \frac{\Delta E}{\Delta Y} * 100$

p1 = 勞勤生産性 上昇 寄与率

E = 雇 傭 量

Y = 国 民 所 得

- ① 勞 動 生 產 性 上 昇 寄 与 率 이 가 장 높 은 国 家 는 체 코, 동 독 등 의 先 進 国 家 와 유 고 는 상 당 한 실 업 이 存 在 했 음.
- ② 雇 傭 增 加 가 国 民 所 得 增 加 에 큰 役 割 을 한 国 家 는 後 進 社 会 主 義 国 家 였 으 며, 雇 傭 增 加 가 항 상 可 能 했 던 것 은 불 가 리 아, 폴 랜 드, 소 련 이 었 음.
- ③ 1960 年 代 중 반 부 터 雇 傭 增 加 보 다 勞 動 生 產 性 上 昇 이 더 重 要 한 役 割
 - ㉠ 最 近 의 經 濟 改 革 에 서, 勞 動 生 產 性 의 提 高 에 역 집
 - ㉡ 經 濟 發 展 의 高 度 化 에 따 라 勞 動 生 產 性 上 昇 이 중 요 성 을 띠 음.

2) 工業生産과 勞動生産性

勞動生産性 上昇의 成長奇与率

(1950-68)

單位 : %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
(1) 1950-60	44	49	52	37	56	55	53	31 (2)
1961	82	50	117	70	70	47	56	29
62	70	50	117	62	50	50	70	57
63	40	-100	100	57	60	58	62	69
64	60	75	83	67	78	71	43	50
65	53	75	83	80	44	54	67	50
66	33	57	100	71	57	73	67	120
67	62	86	86	70	50	71	70	0
68	75	80	83	40	56	67	62	100

註) : (1) : 1950 = 100, (2) : 1952-60 年期間

(1) 勞動生産性 上昇이 成長에 미친 影響은 國民所得보다 工業生産에서 더 큼

(2) 1960 年代 末期에 工業生産에서 차지하는 勞動生産性的 몫은 불가리아, 폴란드의 $\frac{6}{10}$ 에서 동독의 $\frac{9}{10}$ 사이

(3) 工業에서의 勞動生産性 上昇이 더 높은 것은

⊖ 工業部門은 資源配分에 量質勞動力의 우선 配分

- ㉠ 技術革新의 餘地가 크고
- ㉡ 工業製品的 相對的 高評價에 起因

다. 問題點

- (1) 改革은 勞動生産性의 上昇을 저해하는 要素들 完全히 除去못 함.
- (2) 勞動에 대한 超過需要는 아직도 存在, 資本使用料의 導入에 따라 勞動不足은 더욱 深刻, 資本使用料는 資本보다 需要를 增大시키는 傾向
- (3) 標準 賃金의 上昇, 誘引基金이 많이 支給되고 있지만 아직 生産性 上昇에 未洽

9. 金融制度의 改革

가. 改革以前의 貨幣와 金融의 役割

- ① 貨幣의 기능은 國家에 의한 計劃에 의하여 제한
 - 單純한 記錄, 記帳手段, 經營管理을 便利하게 하며, 生産과 分配의 統制에 局限
 - 完全한 公산주의 (Full communism) 時期가 到來하면 貨幣의 機能은 없어지는 것으로 看做
- ② 改革以前 貨幣의 기능은 제한된 範圍內에서 役割 遂行
 - ㉠ 勞動市場 ㉡ 消費材의 分配 ㉢ 私的인 部門
- ③ 金融의 主要 機能은 經濟計劃目標에 따른 資金의 分配 役割 (投資資金—投資銀行, 短期信用—中央銀行 또는 其他銀行)
- ④ 이러한 金融制度는 高度의 中央集權的인 指令的 計劃 管理體制下에서는 量的인 經濟發展의 追求에 效果的

나. 金融制度의 改革

1) 構造의 改革

가) 金融機關의 多樣化 (特殊銀行의 設立)

- ① 유 고 :
 - 1954年 以前에는 하나의 銀行만이 存在,
 - 1964—65年의 改革으로 銀行數는 약 100개)
(投資銀行 : 10, 投資—商業銀行 : 40,
商業銀行 : 50)

○ 改革으로 銀行의 設立者, 顧客은 利潤分配에 參與可能

② 체코 - 1969年 7個의 銀行設立

③ 불가리아 - 農業 및 商業銀行 (1969) 工業, 建設, 商去來를 위한 銀行 (1969) 設立

④ 동독 - 産業銀行 (1968) 設立

⑤ 루마니아 - 農業銀行 (1968), 外國貿易銀行 (1968) 設立

나.) 銀行의 集中化

① 銀行資金의 誤用을 豫防하기 위하여 集中의 必要性이

생김 - 嚴格한 金融統制

② 集中化의 現狀으로

㉠ 少規模 協同銀行의 減少

㉡ 長期金融과 短期金融의 同一銀行 取扱

㉢ 投資 및 生産, 去來資金을 中央銀行이 担当

2.) 銀行의 地位와 責任의 增大

① 銀行은 財務省의 下部機關이 아니라 効率的인 投資, 生産의 助長者 役割

② 銀行間, 同一銀行의 支店間에 競爭增大

③ 企業에 대한 財政顧問의 役割

④ 個人貯蓄蒐集의 役割에서 現在는 農場, 私有財權, 小規模企業所, 住宅, 耐久消費材의 購死등에 주요한 資金의 供給機能 遂行.

다. 利子の 改革

1) 利子前の 資本調達

- ① 모든 投資는 無償으로 豫算에서 配定
- ② 政府는 貨幣를 經濟政策 手段으로 不使用
- ③ 運轉資本에 대한 信用은 資本使用料를 徵收했으나 매우 小額

2) 改革의 實施

- ① 消費者信用의 擴大 - 勞動에 對한 物的要因의 役割
 - 消費者 信用은 需要를 統制하는 有效한 手段으로 登場
- ② 利子率의 引上, 多樣化
 - 利子는 資金調達, 申請을 效果的으로 規制하는 手段으로 됨.
 - 1960年代 중반 이후 (유고는 部分的으로 1952年 이후) 利子率의 一般의 水準은 약 7% 水準으로 인상
 - 利子率의 最高限度는 20%까지 인상되어 資本主義 國家보다 높아짐.

○ 利子率의 改革
(1969)

	불가리아	체코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
貿易信用	2	8-12	1.8	8	4	2	1	10*
一般信用	2	6	3.6	8	4	4	6	10*
不要不急의 한用途의 信用	4-8	12	5-12	4-14	4-10	12	7	10*
延滯利率	8	12	10-12	14-16	12	12	8	20*
投資信用	2	6	1.8	5-8	3	1	2*	10*
當座豫金		0.5	1	0	0	0	0.5	3*
貯蓄性預金		3*	5*	3-7	2-6	0	0.5	8*

註) : *는 最大 利子率임.

③ 利子率은 期間이 長期일수록 높은 利子率 適用

그러나 社会的으로 優先順位가 다른 project에서는 특별
利率適用, 關係會議의 承認을 얻으면 無利子

④ 經濟計劃에 不包舍된 目的의 신용에 대해서는 보통의 利子
率보다 約 2 倍의 高率 適用

⑤ 그러나 信用과 利子率은 資本主義 國家에서와 같이 資源配
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함.

라. 資本調達面의 改革

1) 改革前의 資金調達

- ① 資源調達は 國家豫算, 企業의 蓄積 фонд, 銀行信用에 依存
- ② 이중 豫算配定에 의한 調達이 전체의 약 $\frac{2}{3}$ 를 차지

1963 현재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소련	폴란드	동독
75 %	70 %	68 %	61 %	60 %	48 %	46 %

2) 改革의 實施

가) 國家豫算 配定方式의 減少

- ① 1960年代 중반이후 國家豫算에 의한 資源調達は $\frac{1}{3}$ 水準으로 減少
- ② 豫算에 의한 資源調達方式은 유고에서는 1967년에 廢止
나머지 國家들도 이런 方式의 資金調達이 漸次 減少하는 傾向
- ③ 그러나 國家豫算 配定에 의한 方式은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에서는 아직도 큰 역할
 - 新企業의 設立
 - 大規模投資가 所要되는 部門
 - 회임기간이 긴 사업

○ 經濟構造 改善에 影響이 큰 事業

○ 利潤이 낮은 產業

④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에서는 國家豫算 配定에 대하여 部分償還, 利率의 適用이 可能하도록 改革

나) 企業蓄積펀드의 比重增大

① 價格改革과 租稅政策 變更으로 企業은 自己資金의 蓄積이 可能

② 또한 減価償却金, 剩餘固定資産의 販賣, 銀行預金에 對한 利資를 受領 可能

③ 이러한 資金調達 방식은 企業의 自主性, 궁지를 向上하며 能率增進에 寄與

○ 投資資金의 用途

	國家豫算	企業蓄積펀드	銀行信用
불가리아	中央当局指定産業 赤字産業	中央計劃投資 企業이 결정한 投資	모든投資
체코	例外的	모든投資	經濟的妥當性 있는 모든投資
동독	例外的	.	.
헝가리	中央指定投資	中央計劃投資 企業이 결정한 投資	"
폴란드	.	모든投資	모든投資

	国家豫算	企業蓄積 фонд	銀行信用
루마니아	中央에서 計劃한 新投資	企業이 決定한 投資	企業이 결정 한 投資
소 련	回入期間이 5年以上인 投資	모든 投資	모든 投資
유 고	없 음	모든 投資	經濟的 妥當性이 있는 모든 投資

④ 改革實施後 銀行信用과, 企業蓄積 фонд에 의한 投資比率이 增
大

○ 投資源泉의 變化

%

	불 가 리 아		항 가 리		폴 랜 드	
	1963	1968	1963	1968	1963	1968
国家豫算	70	43	75	99	48	28
企業蓄積 фонд	29	31	24	39	44	52
銀行信用	1	26	1	12	8	20

다) 其他의 資金調達源

① 私 債

○ 유 고에 存在 - 유 고鐵道, 自動車會社, 家具製造業 등에서 발행

(2) CMEA 國家間 投資信用

- o 1970 年 國際投資銀行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設立

(3) 西歐資本

- o 1960 年대로 동서 合作投資 企業 設立
- o 유고에서는 特定産業에서 西歐資本이 중요한 역할
- o 유고는 國際投資公社 (Inter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를 設立하여 西歐資本의 流入을 促進.

10. 資本形成問題에 對한 態度變化

가. 資本蓄積에 對한 態度變化

1) 改革以前의 態度

- (1) 經濟發展은 資本 - 算出比率 (Capital output Ratio) 의 繼續的인 增加에 의하여 達成되며 따라서 生産材의 生産이 消費材 生産보다 빨리 增加되어야 한다고 생각
- (2) 大規模 蓄積의 必要性은 첫째, 重工業의 우선 開發, 둘째, 量的인 開發戰略에 起因
- (3) 資本蓄積率은 보통 國民所得 (社會主義 概念) 의 20-30 % 水準 (生産材 價格의 低評価를 考慮하면 20-40 % 水準)

○ 資本蓄積率

(對國民所得)

單位 : %

	1950	1955	1960	1965	1967
불가리아	20	21	27	21	33
체코 ①	17	20	18	20	22
동독 ①	10	12	18	12	24
헝가리	23	22	25	23	26
폴란드	21	23	24	23	27
루마니아	18	18	20	25	29
소련	27 ②	25	27	26	27
유고	36 ②	35	34	28	21

註) ① : 生産的投資 ② : 1952年

- ④ 計劃된 蓄積水準을 維持하기 위하여 貨金펀드의 統制, 去來稅, 重課, 農作物의 國家수매 가격 저수준유지, 國家에 對한 強制的 借款提供, 消費材輸入 統制, 海外旅行 制限등을 통한 현재의 소비抑制
- ⑤ 投資增加率は 國民所得 增加率보다 높음.

	1951 - 60		1961 - 65		1966 - 68	
	投資	國民所得	投資	國民所得	投資	國民所得
불가리아	16	11	9	7	19	9
체코	11	8	2	2	7	9
동독	16	10	5	3	9	5
헝가리	7	6	5	4	11	9
폴란드	10	8	7	6	9	7
루마니아	16	10	11	9	12	7
소련	13	10	6	7	8	7
유고	16	8	15	8	7	5

2) 改革以後의 態度變化

① 資本蓄積에 관한 생각에 대한 徹底한 再評價

- 消費의 一定水準 이하로의 抑制는 勞動者의 士氣低下, 소의감으로 能率低下

- ② 生産材 生産의 成長率이 消費材의 그것보다 높아야 한다는 原則에 대한 疑問 提起
- ③ 計劃樹立과 投資實施에 分權化 進展(루마니아 除外)
- ④ " 資本의 擴大 " 보다 " 資本의 深化 " 을 追求하는 傾向 대두

나. 資本의 構造面의 改革

1) 生産的投資와 非生産的 投資의 比率

- ① 經濟改革은 두가지 矛盾되는 效果 發生
첫째, 質的인 成長追求는 非生産的 投資의 生産的 投資로의 轉換
둘째, 勞動生産性 向上을 위한 非生産的 投資擴大의 必要性
- ② 결국, 經濟發展이 高度化되면 非生産的 投資의 增加가 效果 的일것임.

다. 資本使用料

1) 改革以前

- ① 1960年代 중반까지 (유고 : 1950년대초까지) 資本은 企業 稅 無償分配
- ② 減價償却은 低率이거나, 導入되지 않았음
- ③ 이로 인하여 企業은 많은 資本의 配分을 요청 - 浪費招來

2) 改革의 實施

① 루마니아를 除外한 東歐諸國에서 資本使用料 制度導入

(유고, 1953 其他國家 : 1963-67)

② 企業自體 가치의 一定比率을 國家豫算에 納付 (3% - 6%)

③ 農業, 水産業, 輸送 및 非生産的部門은 資本使用料 免除

○ 資 本 使 用 料

國 家	導入年度	年平均 比 率	資本使用料를 納付하는 資産
불가리아	1964	3	工業의 固定資産과 流動資産의 總價値
체코	1966	5	工業의 固定資産과 流動資産의 純價
동독	1964	6	工業과 去來部門에 固定資産과 流動資産의 總價値
헝가리	1964	5	農業은 制限生産部門의 固定및 流動資産의 總價値
폴란드	1966	5	工業의 固定資産의 總價値
소련	1966	6	工業部門의 固定및 流動資産의 總價値
유고	1953	4	非農業部門의 固定및 流動資産의 純價値

④ 資本使用料는 質的인 成長을 促進하는데에 主要한 役割遂行

○ 企業은 過度한 資本配定 要求, 利潤極大化에 努力集中.

11. 産業構造의 發達

가. 産業部門의 構造 變化

- (1) 改革以前에는 産業部門間 變化 즉 農, 工間 比重에 있어서 工業의 비중 提高등이 重要 과제 였으나 改革以後에는 産業部門 内部의 變化 중시
- (2) 특히 동독의 경우 특별한 우선적 취급을 받는 部門을 든다면 電力, 電子計算器, 科學機器, 設備機械, 産業 生産技術, 石油 化學, 加工業, 輕金屬, 콘테이너, 원자력 發電所 등임.

나. 産業統合의 問題

- (1) 改革以後 3 가지 形態의 統合 (垂直的, 水平的, 地域的) 의 속도 및 範圍 擴大
- (2) 統合의 促進 要因
 - ㉠ 改革以後 의사결정의 分權化 및 다른 企業과의 水平的 유대 強化를 강조하는 政策의 採択
 - ㉡ 規模의 經濟
 - ㉢ 값비싼 설비의 効率的 利用
 - ㉣ 經營幹部, 專門家의 助言 獲得 容易
 - ㉤ 高度의 專門化 促進
 - ㉥ 研究開發 및 技術革新 용이

㉠ 기타 資金面, 物資供給 및 確保面, 副産物 이용면에서 有利

(3) 産業統合의 進行

㉡ 불가리아의 경우 300 만 Leva 이상의 固定資産 保有企業의 比重은 50年代 5% 60年代 19%로 增大

㉢ 헝가리의 경우 1,000 명 이상을 雇傭하는 企業체는 50%이며, 서독 40%, 영국 35%, 미국 32%에 불과

㉣ 유고의 경우, 企業의 수는 59年 25,000 개 이상에서 68年 14,000 개 이하로 감소되었고 企業의 規模는 59年—68年間 2배이상 增大

(4) 産業統合의 被害

㉤ 社會主義 國家에 있어서 競争排除, 獨占的 요소 강화

㉥ 특히 經濟改革 이후 企業의 獨立性提高에 따라 企業의 價格決定權, 生産量 결정에 대한 權限 擴大로 獨占力 被害擴大

㉦ 統合에 따라 生産品目的 調整

○ 消費材와 生産材의 多樣化 要請

다. 生産材 및 消費材

(1) 生産材 産業의 優先的 發展

○ 生産材 와 消費材 生産의 增加率

	51-60		61-65		66		67		68	
	生産材	消費材	生産材	消費材	生産材	消費材	生産材	消費材	生産材	消費材
불가리아	18	12	14	10	13	12	14	12	-	-
체코	12	9	5	5	7	6	12	5	5	6
동독	14	12	7	4	6	4	7	5	-	-
헝가리	15	8	8	8	8	6	7	11	-	-
폴란드	15	11	10	6	8	6	9	5	10	7
루마니아	15	11	16	10	12	10	14	13	-	-
소련	13	10	10	6	9	7	10	9	8	8

○ 生産材의 比重 () 안은 消費材 比重

	50	60	67
불가리아	38 (62)	47 (53)	53 (47)
체코	47 (53)	58 (42)	60 (40)
헝가리	-	66 (34)	65 (36)
폴란드	53 (47)	59 (41)	64 (36)
루마니아	53 (47)	63 (37)	68 (32)
소련	69 (31)	72 (28)	74 (26)

○ 從來經濟가 持統적으로 成長하려면 生産材 成長率이 消費材 成長率보다 높아야 한다는 思考方式이 支配的

(2) 生産材 優先思考 方式의 變化

① 67年 소련의 労働党 中央委員會에서 生産材와 消費材 生産 成長率의 調整이 必要함이 論議

② 68年 헝가리 中央計劃局의 副局長 Huszar에 의한 경우 지나친 投資率의 증대는 非效率을 招來함을 指摘하고, 生産材 工業이 消費材 工業 成長을 보다 높아야 할 理由가 없음을 지적

③ 폴란드의 經濟學者인 Kalecki에 의한 경우, 持統的 成長 維持를 위해서 資本投資를 높힐 것이 必須的 條件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

④ 소련의 Veiyevich에 의하더라도 生産재 공업이 소비재 공업보다 成長率이 낮더라도 資本계수를 낮출경우, 持統的 成長이 可能하다는 결론 到達

⑤ 폴란드 經濟學者인 Laszki에 의하더라도 高率의 資本蓄積에 의한 急速한 成長의 追求는 資本計數를 上昇시키며, 經濟成長率을 下向 調整할 경우 資本計數를 낮추게되어 결국 높은 成長이 可能하다고 主張

(3) 生産材와 消費材 成長率의 隔差 減少

① 소련의 경우 68年 이래 소비재 成長率이 生産材 成長率 上廻

	生産材 增加率	消費材 增加率
1928 - 67	10.5	4.5
68	8.0	8.3
69	6.9	7.2
70 (計劃)	6.1	6.8

② 그 밖에 67年 헝가리와 68年 체코의 경우 소비재 生産 增加率이 生産材 生産增加率 上廻

라. 農業部門의 變化

(1) 經濟改革이 農業 部門에 미친 影響

① 農産物價格의 引上, 私的營農에 대한 制限의 緩和, 農民에 對한 社會保障制度의 擴大 및 減稅措置 등에 따라서 農業所得이 增大

○ 50年代에는 平均 農業所得은 工業所得의 2/3에 不過
70년에는 平均 農業所得은 工業所得의 4/5로 增大

② 經濟改革에 따르는 質的 成長의 強調로 農業部門의 勞動力

을 기타 効率的部門으로 移轉

○ 60년에는 100헥타당 農業勞動力 20名, 70년에는 14명, 80년에는 計劃上 8名이

(2) 農地의 社會化

○ 各國에 있어서의 農地의 所有形態

		國營牧場	集團農場	私營	私的菜田
불가리아	1950	—	42.7	—	3.9
	60	10.9	79.9	1.1	8.1
	67	19.5	69.7	0.5	10.3
체코	1500	13.0	14.4	69.2	1.0
	60	20.3	63.1	11.7	4.8
	67	29.6	55.8	9.7	4.1
동독	50	5.7	—	94.3	—
	60	8.0	73.2	7.6	11.2
	67	7.9	76.3	6.0	9.8
헝가리	50	13.5	3.6	82.5	0.2
	60	19.3	48.6	24.6	7.5
	67	15.7	68.3	5.7	10.3
폴란드	50	9.6	0.8	89.6	0.2
	60	11.8	11.1	86.9	0.1
	67	13.5	1.1	84.7	0.2

		国营牧场	集团农场	私 营	私的菜田
루마니아	1950	21.5	1.9	76.4	2.3
	60	29.4	50.2	18.1	6.6
	67	30.2	54.4	8.8	1.7
소 련	50	16.9	80.7	0.5	1.4
	60	42.2	56.4	—	1.5
	67	58.1	40.4	—	
유 고	50		22		78
	60		14		86
	67	9.0	7.0		86

① 農地 社会化에 대한 例外 (유고 및 폴란드)

- 유고의 경우 福祉社会化는 51年 피크로서 21%
- 폴란드의 경우 福祉社会化는 55年 " 23%

② 改革以後 私營農地 및 채전의 生産比重 提高

- 私的 營農生産의 全体 農業生産에 대한 比重

	私營耕地面積比重	農業生産 比重
소 련	2% 이하	20%
헝가리	10% 수준	60%
폴란드 및 유고	85% 수준	90% 이상

(3) 農産物 流通制度의 改善

- ① 낮은 價格에 의한 強制수매는 폴란드를 除外하고는 모두 廢止
- ② 食糧은 農民에게서부터 消費者에게 直接 自由市場價格에 의해서 販賣

(4) 農工統合의 推進

- ① 従來의 牧場에 對한 非農業生産 行爲에 關한 制限撤廢
- ② 農業原料에 의한 製造 生産活動의 許容
 - 소련의 경우 農工統合 生産은 15,000 製品에 相當

라. 非生産的 서비스부문에 對한 새로운 試圖

(1) 非生産的 서비스부문 落後

- ① 社會主義 國家의 經濟發展 段階 低水準
- ② 마스 理論에 따라서 소위 物質的 生産部門의 지나친 強調

(2) 非生産的 서비스部門의 重要性 認識

- ① 改革이 후 Service업은 質的成長의 주요 源泉으로서 生産性 促進 手段이 된다는 思考方式 대두
- ②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라 이에 對한 國民의 需要 增大
- ③ 外貨獲得을 위해 外國民의 本國 旅行制限을 撤廢하여, 여행업에 의해서 貿易보다 높은 外貨獲得이 可能함을 經驗

(3) 非生産的 서비스部門의 비중 增大

① 8 個國 合計 非生産部門에 대한 就業者 比重은 60 年 15 %에서 70 年 20 %로 提高

② 다만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동기간 10 %에서 15 %로 증대

12. 生産과 流通

가. 商業의 役割變化

(1) 商業機能의 認識變化

- ① 改革以前의 商業은 生産된 物資를 基礎로하며 作成된 國家의 供給計劃에 따르는 物資分配 機能에 不過
- ② 近来 消費者의 最終需要 充足 機關이라는 점 強調

(2) 商業機能 増大를 위한 改革의 內容

- ① 商業機關의 成果 判定指標로서 利潤導入
 - 生産과 소비간 効率的 連結 達成
- ② 企業間 契約制度 導入에 의한 物資 배분
 - 從來의 中央集權的 物資配分 計劃의 伸縮性 導入
- ③ 商業機關間 競争을 誘發하는 措置의 導入
 - 특히 체코, 동독, 헝가리, 유고등에서 수개의 商店에 의한 소비자 選擇여지 도입
 - 대부분의 國家에 있어서 製造企業이 商店과 競争的으로 자신의 販賣網 設置 許容
- ④ 廣告制度의 擴大
 - 各國에 있어서는 廣告를 代行하는 수백個의 기관이 설치되었고, 신문, 雜誌, 라디오 등에서 항상 商業廣告 掲載, 放映

(5) 去來上 契約不履行에 대한 制裁의 強化

㉑ 從來에는 物資不足에 따르는 販買者市場이 形成되어 契約不履行을 問題삼지 않았음.

㉒ 近來에는 契約不履行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嚴格히 하여 이를 防止

○ 소련의 境遇 68年 1月 1日 이후 契約遲滯가 10일 이내일 경우 3%의 벌과금, 10일 이상의 경우 5% 벌과금 賦課

(3) 商業의 重要性 增大

(1) 소매 판매액 成長率의 增大

	61 - 65	66 - 69
불가리아	6.8	8.8
체코	3.4	10.1
동독	2.5	4.9
헝가리	5.2	8.0
폴란드	6.0	6.4
루마니아	9.9	8.4
소련	6.0	8.5
유고	9.6	7.0

② 商業投資의 擴大

○ 50年代 3% 이하에서 60年代 3% 이상으로 增大

③ 商業信用의 증대 등

나. 去來稅

(1) 改革前 去來稅의 結點

① 從來의 特徵

(가) 去來稅가 소매가격의 약 $1/3 - 2/3$ 를 차지하는 높은 比率을 占하고 있었다는 점

(나) 市場의 需要供給 狀態를 反映하여 價格이 결정되는 資本主義 國家와는 달리 價格이 去來稅의 수준에 따라서 달리 결정된다는 점과

○ 市場價格은 國家計劃에 따르는 供給量에 대하여 需要를 調整할 수 있는 수준의 去來稅 賦課에 의하여 결정됨.

② 結 點

○ 市場價格이 需要供給面의 變化에 의하여 變動되지 못하고 人爲的으로 결정되는 去來稅부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經濟的 浪費 招來

(2) 去來稅制度 改革

① 去來稅는 生産者價格 (生産費用 + 計劃利潤率)에 대한 固定

比率로써 賦課

② 去來稅 賦課率의 長期間 安定

③ 去來稅의 規模 削減등임.

○ 各國에 있어서는 豫算中 去來稅의 比重이 저하되는 반면 國營企業 利潤金의 比重 增大

(豫算中 去來稅比重 : () 안은 國營企業利潤中 비중)

	50年	56年	60年	65年	68年	69年
소련	56%(10%)		41%(24%)	38(30%)		32%(35%)
동독		53%(19%)			7%(33%)	

다. 市場制度의 導入

(1) 市場制度의 敝如

① 消費材市場의 경우에는 50年代초 配給制度의 終了에 따라서 計劃當局者는 物資의 不足이나 剩餘를 回避하기 위하여 消費者의 先好 考慮

② 生産材의 경우에는 市場 메카니즘을 전혀 敝如

(2) 市場制度의 發展

① 유그의 경우 52年 이후 특히 65년에 이르러 活潑히 市場을 發展시키고 있음.

○ 改革에 따르는 企業의 獨立性提高 및 企業餘裕 資金의 증대로 私債市場 設立이 主張되고 資本市場의 發展 可能性이 있음

- ② 유고 및 폴란드의 경우, 私的農地 및 農機械의 販買盛行, 國家가 私農地를 國有化함에도 時勢에 맞추어 補償支給
- ③ 헝가리에서도 68年 改革以後 原料 및 半製品의 販買를 担当하는 機關 設立
- ④ 소련에서는 66年以來 生産材市場의 必要性이 力說되고 있음.

(3) 販売者 市場에서 購売者 市場으로의 發展可能性

- ① 社會主義 各國의 成長 高度化로 品種의 多樣化와 品質 改善 可能
- ② 細部的 目標가 中央으로부터 指示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市場條件에 따르는 生産에 있어서의 企業의 選擇餘地 增大
- ③ 政策 當局者들이 過去와 같은 보틀넥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고를 維持하려는점
- ④ 企業成果 判定指標로서 利潤率을 導入함에 따라서 企業이 市場需要를 크게 考慮하게 됨.
- ⑤ 社會主義 各國에서 競爭原則이 強化되고 있다는 점
- ⑥ 60年代 중반기 이래의 價格改革에 따라서 生産材의 價格이 相當히 引上되어 공급과 需要의 隔差가 減少된점 등에서 購買者 市場發展 可能性 保有

13. 技 術 進 步

가. 技術進步의 內容 및 目標

(1) 內 容

- ① 보다 效率的인 經營管理, 專門化의 深化, 原料, 設備, 勞動의 더욱 效率的 利用과 生産過程의 全般的, 合理化 등에 의한 生産方法의 改善.
- ② 熟練된 勞動力, 機械의 耐久性, 正確性, 技能的分化 및 土地의 배수와 灌溉 등 資源의 質改善
- ③ 重量, 耐久性, 디자인, 안전도, 아름다운 外形 등과 같은 製品의 質改善 등으로 構成되며 넓은 의미로 解狀될 경우
- ④ 노동에 대한 資本裝備率 (특히 動力化된 機械) 의 증대가 추가됨.

(2) 目 標

- 技術進步의 최종적 目的은 資源의 經濟性 증대 또는 현존하는 資源으로부터의 보다 많은 양의 生産量이나 品質의 向上 또는 1인당 國民所得의 增大 등임.

나. 技術進歩의 不振要因

(1) 企業單位의 技術革新 不振

- 國家資金에 의한 中央機關에 의한 技術研究 및 技術改革은 어느정도 成果있게 進행되는 반면, 여러가지 阻害要因에 따라서 企業單位의 技術革新은 不振

(2) 技術進歩를 저해하는 制度的 矛盾

- ① 企業의 生産活動이 責任目標의 量的 遂行에 만 중점이 두어지고 費用의 節減이나 製品의 品質改善은 거의 無視
- ② 유용한 技術이 開發되었다고 하더라도 新技術에 의한 從來의 生産方法의 變形은 責任目標 達成에 段階的으로는 惡影響을 미치는 것이 不可避하며 또한 새로운 技術導入에 따르는 危險負擔을 回避하기 위하여 企業者가 技術革新을 외면
- ③ 販賣者市場이 支配하여 어떠한 製品을 生産하든 용이하게 처분이 가능
- ④ 技術革新에 必要的 資金은 中央에 의한 예산으로 分配되므로 企業레벨에 의한 技術革新 저해
- ⑤ 生産材의 中央計劃的 分配에 따라서 企業에 의한 效率的 資源의 결합을 追求할 餘地制限
- ⑥. 技術段階에 따르는 賃金額의 差額이 너무 적어서 勞動技術 向上저해

⑦ 固定資本이 無料로 分配되며, 資本使用料가 없으므로 技術革新에 대한 關心은 적고 될수록 많은 資本 配分만을 要求.